

“낮의 정원·밤의 정원... 환상의 풍경이 펼쳐진다”



정원박람회 이색 관람 포인트

저류지 정원모델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으로
동천 복원 '뱃길'서 타는 **전기배**
가든스테이 **실랑게** 인기몰이중
미디어아트 야간경관 대폭 개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박람회)가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사흘 뒤 개막하는 박람회는 2013년 첫선을 보인 뒤 10년 만에 재정부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관람포인트는 열 가지 핵심콘텐츠다.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은 시민의 쉼과 사색, 커뮤니티, 문화가 있는 대표 저류지 공원이자다.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이 된 그린 아일랜드도 박람회의 명소다. 아스팔트 1km 구간을 광활한 잔디밭길을 조성해 남문으로 들어가는 주요 입구 동선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옛 해룡장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국가 정원뱃길과 정원드림호는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전기로 운행되는 정원드림호는 3월 중순께 안전점검과 시운전을 마쳤다.

국내 최초의 테마 수상 정원인 물위의 정원도 관심을 모은다. 개막식 주 무대로 사용될 예정인 물위의 정원은 플로팅 공법의 정원으로 지속가능한 정원의 모습을 선보인다.

국가정원 권역에는 미래 정원의 모습을 보여줄 시크릿가든과 국가정원식물원이 있다. 시크릿가든은 밤하정원, 햇빛정원, 식물정원으로 나누어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국가정원식물원은 순천의 삼산이수를 닮은 입체 식물전시공간으로 449종, 6639주가 식재돼 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프레스데이가 29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왼쪽부터 어싱(Earthing) 길과 꿈의 다리, 네덜란드 정원.



나건호 기자

정원을 머무는 곳으로 바꾼 가든스테이 '실랑게'는 벌써부터 인기가 높다. 가든스테이는 지난 24-26일 3일에 걸친 리허설에서 받은 피드백을 보완해 완벽하게 오픈 준비를 끝냈다.

도심과 정원에 걸친 15km 어싱길도 마사토 정비가 완료됐다.

야간경관은 점등 및 분수 연출 상황을 총점검했다. 10년 전 일부 박람회장에 연출됐던 야간경관이 도심까지 확대돼 관람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류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31일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동천 위

수상 무대에서 펼쳐진다. 참석 규모는 특별초청 대상자와 대국민 참여단을 포함, 약 3만명이며, 순천만 보존 스토리를 담은 개막공연과 케이팝 가수들의 축하공연(조수미, 박정현, 프라우드먼 등)이 준비돼 있다.

박람회장은 4월1일 오전 공식 개장식을 하고 10시부터 1호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정원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면,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서는 오감만족 문화박람회가 열린다. 매주 금·토요일 저녁 오천그린광장에서는 박람회 공식 주제 공연이 열리며, YB밴드 콘서트, 팽수팬 미팅, 트롯한마당, 강변가요제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공연이 매월 준비돼 박람회에 열기를 더한다.

또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쟁길 수 있는 어싱길 걷기, 요가·명상·태고 등의 웰니스 체험 콘텐츠가 수시로 개최되며 '매월 축제가 있는 박람회'를 목표로 월별 이색 페스타(반려견, 치맥, 호러 등)가 관람객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국제농업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정원박람회 기간에 순천에서 개최돼 전남권 전체가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를 총감독·지휘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와 연계한 행사들로

순천 도심에 800만 소비군을 끌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입장객 수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피플카운팅 시스템과 안전 드론 운영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구역별 안전 관리 책임제를 실시해 안전한 행사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800만 관람객 유치에 목표를 하는 정원박람회는 각종 업무협약과 유치활동으로 약 160만명의 단체 관람객을 확보했다.

이날 기준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61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5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가 일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에 대한 밀도 있는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 방안도 꼼꼼히 수립하고 있다.

노 시장은 "사후 활용 용역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박람회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완벽하게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최항지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